

논제: 시리아 내전,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뻗어 가는가 - 강남규

--

1. 현재 상황
2. 배경
3. 경과
4. 영향
5. 기타
6. 참고문헌

--

1. 현재 상황

1-1. 휴전협정

“시리아 내전이 9월 12일 일몰로부터 일주일간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미국과 러시아가 9일 도출한 잠정 휴전 합의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시리아군과 반군은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알레포 등 포위지역에 인도주의 구호가 가능하도록 봉쇄가 해제된다. 시리아군은 알레포의 주요 보급로인 카스텔로로드 등을 열어야 한다. 반군 장악지역에 시리아군 전투기 비행이 제한된다. 이번 잠정 휴전은 '온건 반군'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는 것으로, 자바트 파테 알삼을 비롯한 '극단 반군'은 여전히 공격 대상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이행센터를 만들고, 극단 반군에 대한 공동 작전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현지시간 오후 7시(그리니치 표준시 16시)부터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잠정 휴전이 제대로 이행되면 시리아정부와 반군 그룹은 유엔의 중재 하에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시작한다. 미 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시리아정부와 반군 그룹 사이에 협상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¹⁾

1-2. 협정파기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고 일주일 내내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약속과 달리 알레포의 봉쇄를 풀지 않았습니다. 반군이 휴전을 계속 위반하니 구호를 위한 통로를 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가 인도적 구호임무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휴전 개시와 함께 터키 국경지대에서 대기하던 구호트럭 수십 대가 일주일 동안 발이 묶인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적신월사의 구호트럭이 알레포를 향해 출발했고 결국 한밤중에 막무가내 폭격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집니다. 미군을 포함한 국제동맹군이 데이르 예조르의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오폭하면서 60명이 넘는 시리아 정부군 병사가 숨집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당장 ‘고의적인 침략 행위’라고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며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휴전 합의로 조금은 풀리나 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휴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휴전 기간 48시간이다 72시간이다 흘러나온 휴전 연장 발언도 쑥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IS 격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 설립은 없던 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폭은 시리아 정부군에게 보복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일주일만 지나자마자 시리아 정부군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알레포를 포함해 곳곳에서 폭격과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휴전 기간 무장한 테러집단이 합의를 위반하

1) 연합뉴스, 시리아 내전이 일주일 동안 불안한 잠정휴전에 돌입했다, 2016년 9월 13일.

고 전열을 정비했다”며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휴전 파기의 첫 작품으로 구호트럭인 줄 뺀히 알면서 폭격했다는 게 정설입니다.”²⁾

2. 배경

2-1. 아사드의 독재

“하피즈 알-아사드는 매 임기마다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30년간 시리아를 통치했으며, 통치 기간 내내 정당, 단체, 개인을 막론한 어떠한 반대 세력도 철저히 억압했다. 5개의 정보 기관에서 국민들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했으며, 정치 사범은 군사법정에 회부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의 인권 수준은 매우 열악해졌고, 수감된 정치 사범들은 가혹한 대우와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수많은 반정부 활동가들은 해외로 도피, 또는 망명했다.

(...) 2000년 (하피즈의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 집권 이후 새 대통령의 젊은 나이, 영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에 대한 관심사 등은 시리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바샤르는 집권 초기에 몇 가지 실험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 바샤르는 경제 개혁과 개방에 집중했다. 바샤르는 집권 이후 인터뷰에서 국내경제정책의 기본 노선은 일자리 증가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 및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집권당인 바아스당의 이념인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던 바샤르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독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사회주의 바아스당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무색해졌다. 이처럼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경제 개혁 및 개방정책의 불완전한 성공이 서민층을 경제난에 빠뜨린 것도 반정부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³⁾

2-2. 아랍의 봄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 민주화 운동은 시리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반정부시위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2011년 1월 시리아 정부의 인터넷 네트워크 전면 개방 결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서구의 팝 음악, Amazon 등의 국제적인 인터넷 서점, Wikipedia, YouTube, 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전면 개방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리아 국민들이 이웃 국가의 정치상황을 접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리아 민주화 운동은 경제난과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1월 26일 알-하사카(al-Hasakah)에서 하산 알리 아클라(Hasan Ali Aqlah)가 튀니지의 무함마드 부아지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날 분신자살한 사건을 시작으로 1월 28일에는 알-라까(al-Raqqa)에서 쿠르드족 병사 2명이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쿠르드 정책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2월 28일에는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다.

(...) 시리아의 실질적인 반정부 시위는 2011년 3월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의 소도시 다라(Daraa)에서 시작된 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위 발생 초기에 아사드 정권은 비상사태법 해제, 내각 총사퇴, 일부 정치범 석방, 전국민대화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진정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급급한 조

2) SBS, [월드리포트] 일주일의 단꿈, 그게 전부였던 시리아 휴전, 2016년 9월 22일.

3) 김한지, 「시리아 내전 장기화 원인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 제4호 [2014. 02]: 53~88

치에 불과했고,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반정부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아사드 정권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위대를 향한 무력진압을 강행했으며,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의 무력충돌이 심화되었다.”⁴⁾

2-2-1. 9.11 테러 이후 중동 질서의 변화

“9.11 테러는 중동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9.11 테러범들의 다수가 중동 내 미국의 핵심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다. 우방 파키스탄 또한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면서도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은신처를 지원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9.11 테러는 미국 중동 정책의 근본 문제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부시 정부가 흔들리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충격요법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는 중동의 세력균형을 흔들어 이란의 대두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테러와의 전쟁 여파, 그리고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온 세계화가 중동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철용성 같던 중동의 독재정권들이 인민 봉기에 의해 붕괴되는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다.”⁵⁾

2-3. 정부의 무력진압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주민의 시위는 불과 몇 달 사이 전국으로 퍼졌다. 정부군은 초창기부터 탱크와 포를 동원해 평화 시위를 진압했다.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군은 일부러 전화와 전기도 끊었다. 지붕 위의 저격수가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쏘았다. (...) 무고한 시민에게 중화기를 발사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였다. 민간인과 중무장한 군인이 벌인 전투의 결과는 뻔했다. 민간인은 속절없이 짓밟혔다.

시리아군은 아랍에서도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1948년 건국 이래 일어난 이스라엘과의 세 차례 중동전쟁에 모두 개입했다. 1980년대에는 레바논을 군정 통치했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다. 2010년 기준 정규군 병력 32만명에 예비군 31만4000명이였다. 시리아 헌법에는 “바트당이 시리아의 여당이며 따라서 바트당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 지휘관의 명령에 그 어떤 이의 제기나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다. 명령 불복종은 곧 즉결 처형이다. 야전 지휘관에게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가 유독 잔인하게 진압된 이유다.

튀니지나 이집트 같은 다른 아랍 군대와 시리아군은 다르다. 다른 아랍 군대는 대개 영국군의 영향을 받아 최소한 무장 세력과 비무장 민간인은 구분한다. 군법은 무고한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반면 시리아 군대는 과거 사회주의 소련 군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이든 비무장이든 지휘관이 쏘라면 쏘아야 한다.”⁶⁾

2-4. 반정부 세력의 조직화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심각해지자 정부군에 대항하여 무기를 잡은 시민군이 등장했고, 이들은 정부군에서 이탈한 병사들과 함께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을 결성했다. 또한 2011년 8월 23일, 흩어져 활동하던 반정부 인사들이 터키에서 뜻을 모아 시리아국가위원

4) 김한지(2014).

5) 윤덕민, 「서구·이슬람 ‘문명의 충돌’ … 증오·테러 악순환 빠진 지구촌」, 중앙sunday, 2016년 9월 11일.

6) 김영미, 「학살을 거부한 자유시리아군의 탄생」, 시사인, 2016년 9월 2일.

회(SNC: Syrian National Council)를 결성하는 등 차츰 반정부 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 세력의 무력충돌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4일 UN안보리에서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011년 11월, 아랍연맹의 시리아 회원국 자격 정지 및 경제제재 조치, 감시단 파견 등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내전에 가담하면서 시리아 반정부 운동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이라는 이미지로 변질될 가능성 생겼으며, 반정부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서방 세계가 시리아의 이슬람화를 우려하며 직접 개입을 꺼리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 반정부 세력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FSA와 기타 반정부 민병대의 활동이 정부군 못지않게 활발하고 공격적으로 변화했다. 지방 소도시와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던 전투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대도시의 시가전으로 발전했으며, 폭탄테러, 약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폭력 수위가 높아졌다. 결국 2012년 6월 12일 UN은 시리아가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다.”⁷⁾

2-4-1. 자유시리아군

2011년 5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한 아마추어 비디오 촬영가의 동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2011년 4월28일 촬영된 것으로, 시리아 남부 국경도시 다라의 시위 모습이었다. 믿기 힘들게도 군인들이 총격을 거부하며 탈영하고 있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시리아군 최초의 탈영이었다. 2011년 6월6일 압둘라자크 무함마드 탈라스 중위가 장교로서는 처음 탈영했다. (...) 2011년 8월, 시리아 정부군 출신 리아드 알아사드 대령이 탈영병을 규합해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FSA)’이라는 부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민간인 학살을 거부한 병사들이다.

시리아 정부군 육군 대위였던 사피크 씨는 북부 도시 홈스에서 비밀리에 자유시리아군 부대원을 모았다. (...) 자유시리아군은 불과 5개월 만에 4만명까지 불어났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는 자유시리아군이 총 37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7~23개 대대가 군사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무스타파 아흐메드 알셰이크 장군과 아페프 마흐무드 술레이마 공군 대령 같은 군 최고위층도 가담했다. 시리아 내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갈등이 무력 대 무력의 내전으로 변했다는 뜻이다.”⁸⁾

3. 경과

3-1. 대략적인 경과

“2012년 6월, 국제적십자사는 시리아 사태를 ‘내전’으로 규정했으며, 11월 12일부터 미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들, 아랍연맹 등은 반정부연합세력인 ‘시리아국민연합(SNC)’을 시리아인들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했다. (...)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적 무장 개입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2012년 12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금지선(red line)’을 설정했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시리아 내전이 국제적 개입 및 국제적 갈등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 결국 시리아는 민주화 시위 → 내전 → 국제적 개입 등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망자, 부상자, 난민이 발생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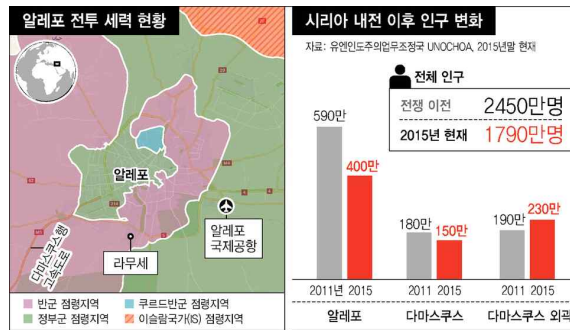
7) 김한지(2014).

8) 김영미(2016년 9월 12일)

로써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

3-1-1. 알레포

“알레포는 지난 4년 동안 정부군이 점령한 서쪽 지역과 반군이 장악한 동쪽 지역으로 쪼개진 채 양쪽 모두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는 생지옥이 됐다. 시리아 내전에서 특히 알레포가 전략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알레포는 터키와의 국경에서 겨우 50 km 떨어진 교통과 경제 중심지로, 전쟁물자의 핵심 보급로를 거느린 전략적 요충지다. 정부군은 러시아 전폭기들의 공습 지원을 등에 업고 알레포로 통하는 병참 보급로를 포위·차단하며 반군의 생명선을 바짝 조여왔고, 반군은 사력을 다해 맞서고 있다. 둘째, 민간인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현재 알레포의 반군 점령지역 주민은 25만~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는 최근 민간인 피난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제안했지만, 유엔과 서방 측은 그 경우 피난을 떠나지 않은 잔류 주민들에 대한 양쪽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비비시>는 전했다.”¹⁰⁾



3-2. 주변국 개입

“냉전시대 중동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은 친미-친소, 친정부-반정부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그러나 탈 냉전 시대에 이러한 명확한 구분선은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2011년 ‘아랍의 봄(아랍민주화운동)’ 이후 중동의 여러 아랍국가들이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주요 행위자(리더십), 제도, 구조의 변동, 즉 급격한 정치변동이 발생하면서 중동 국제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의 국내 정치변동 과정에서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 및 정책결정 그룹이 변했고, 주요 강대국인 미, EU국가들, 러시아, 중국 뿐 아니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중동 타 국가들의 국내정치변동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면서 중동 국제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¹⁾

3-2-1. 미국(오바마 정부)과 UN의 입장

“2012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금지선(red line)을 설정했다. 2014년 9월 14일 켈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라브

9) 정상률,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국제관계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14, 237~275쪽.

10) 한겨레신문, 「죄없는 아이들까지...시리아 최대 격전지 ‘알레포의 비극’」, 2016년 8월 15일.

11) 정상률(2014).

로프 장관은 2014년 중반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에 합의했다(제네바 합의). 2013년 9월 16일 UN화학무기조사단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공식확인한 후에 공습론이 급격하게 대두했으나 9월 27일 UN 안보리는 러시아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UN안보리결의 2118호>를 통해 시리아화학무기 제거에 합의함으로써 시리아 내전 문제, 특히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 의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 오바마정부는 시리아 문제를 ‘미국의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리아 내전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2011년부터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어떠한 매력적인 정책 옵션(attractive policy options)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나쁜 옵션 중 가장 최선의 옵션(the best of a bad set of options)은 ‘반정부 그룹에게 간접적으로 제한된 지지를 보냄으로써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Iyengar and Fishman 2013). 결국 미국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리아에서의 최선의 결과는 ‘미국, UN 등 국제기구의 간접적 지원에 의한 반군의 승리’이다.”¹²⁾

3-2-2. 러시아(푸틴 정부)의 입장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예를 들면, UN안보리결의 2042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군대를 완전 철수하고 중무장 무기 사용을 중지할 것’과 UN과 아랍연맹 공동 특사인 코피 아난(Kofi Annan)이 제시한 6개 핵심제안(Six-Point Proposal)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외부 개입을 반대해 왔다”고 전제한 후에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 과정을 지지한다(supporting a political process to end the violence)” “모든 시리아 내 정파들은 폭력을 중단하고 6개 핵심계획을 지키고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연설했다(Security Council SC/10609).

(...)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보호자로 행동해 왔는데, 이는 리비아로부터의 학습,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시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시리아는 러시아 중동 정책의 중요한 초석, 그 지역 마지막 유사 동맹국(quasi-ally), 미국의 그 지역 독점권에 대한 균형추(counterbalance)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였다. 시리아를 잃으면 러시아는 고립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한 러시아의 중동 및 시리아 외교 정책이 되었다(Klein 2014). 시리아는 중동에서 러시아의 가장 친근한 파트너로서 소련의 접근법의 지속성(continuation of Soviet approaches)을 유지해 왔다.”¹³⁾

3-2-3. 중동 주변국의 입장

“시리아 내전에 대한 주변 주요 행위자는 UN, 미, 러 이외에 EU, 아랍연맹(GCC 국가 포함), 이슬람회의기구, 중국, 터키, 이스라엘 등이 있다. 터키는 반정부군지지 입장에 있었고, 이스트안톨에 ‘자유시리아군’ 지휘부 설립을 허용했으며, 시리아의 쿠르드족 시위 진압이 터키 쿠르드인(전체 인구의 30%)에게 자극을 줄 것을 우려하는 입장에 있었다. 한 때 터키-시리아 국경 분쟁이 있었으며, 2012년 10월 3일 시리아에서 날아온 포탄에 터키 민간인 5명이 숨지자 즉시(당일)부터 보복 공격하는 등 국경분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시리아의 반정

12) 정상률(2014).

13) 정상률(2014).

부단체와 반군지도부가 연대하여 ‘시리아국민연합(SNCORF)’을 결성한 바 있고, 사우디를 비롯한 6개 순니 산유국인 GCC 국가들과 22개 아랍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2012년 11월 12과 13일에 각각 SNCORF를 합법적인 시리아인의 대표로 인정함으로써 ‘반 바샤르 정부 연대’를 형성했다. GCC 국가들은 시리아 바샤르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으나 반정부, 반 서구(반외세),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시리아 반정부 그룹 내 순니파 정치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있으나 친미, 반이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용하는 수용외교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바샤르 정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PLO계의 파타그룹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중동민주화 시기에 비교적 중립적 입장 내지는 반미, 반서구 세력 및 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급격한 변동을 견제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은 시아 종주국으로서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국가이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바샤르 정권을 지지해 왔다.

3-3. IS의 개입

“위기의 순간에 또 한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옆 나라 이라크에서 온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또는 이라크·알삼 이슬람 정부(ISIS)라고 불리는 이슬람 무장 조직이었다. 알삼은 레반트 또는 이전의 시리아를 의미한다. 이들은 이라크 내전 기간 중 서부 도시 팔루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때로는 알카에다와 공조해 미군에 저항하던 소조직이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해체되자 전직 군인과 무기를 확보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훗날 이들은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치는 IS (이슬람 국가)가 된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반군은 이들의 등장을 가문의 단비처럼 생각했다. 이들이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이다. 정부군에 맞서 전투도 함께 치렀다. 자유시리아군의 칼리드 대위는 “처음 나는 신이 이들을 보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부족국가 형태여서 외부인이 들어오려면 부족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리아의 수니파 주요 부족은 IS를 환영했다. 민간인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IS는 시리아에서 영역을 넓혀갔다. 초창기 자유시리아군과 IS의 합동 군사작전은 성공적이었다. 2012년 7월18일 있었던 시리아 국방장관 다우드 라지하와 전 국방장관 하산 투르크마니, 알아사드의 처남 아세프 샤우카트 장군 그리고 정보국장 히삼 이크티야르 폭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IS의 전폭 지원이 없었다면 이 거사는 성공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자유시리아군과 IS는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와 라카, 홈스 등을 속속 해방시켰다. 하지만 IS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주민에게 급진 이슬람 원리를 강요하며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내전은 3파전, 4파전으로 복잡하게 흘러갔다. IS는 시리아 내전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 테러의 씨앗이 뿌려졌다.”¹⁴⁾

3-4. 사태의 장기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리아의 다양성과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구조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리아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형태의 국가이며, 소수집단인 알라위파 아사드 정권은 여러 집단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로 유지하고,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해왔다. 반면 순니파 위주의 반정부세력은 국가 내의 다양한 소

14) 김영미, 친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 IS, 시사인, 2016년 9월 12일.

수집단을 통합하지 못했으며, 결국 단일한 반정부 운동이 불가능해졌다.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군의 군사력 차이도 내전 장기화의 큰 요인이다. 아사드 정권은 매우 강력하고 충성심 높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주화 운동 이후 조직된 FSA를 비롯한 반정부 무장단체에 비해 군사적으로 탁월한 전투력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정부 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및 무기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이며, 실전 경험과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군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지막으로 반정부 세력의 리더십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통치하며 정치적 노하우를 축적해온 아사드 정권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도 내전 장기화의 내적 요인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인 과도정부로 인정받은 NCS조차 모든 반정부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시리아 내전 장기화의 원인이므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선택과 시리아 차기 정부에 대해 정확한 전망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시리아는 현재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 세력간의 갈등뿐 만 아니라 쿠르드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소수종파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세력과 국제적인 무기밀매 및 범죄 조직에 의한 테러리즘과 폭력행위 등으로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미 시리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우선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되찾은 뒤에 시리아를 구성하는 각 집단의 의견을 모아 시리아 정치의 새 장을 여는 길일 것이다.”¹⁵⁾

4. 영향

4-1. 난민문제

“지속된 교전과 공습으로 2015년 8월 시리아 난민 수는 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IS 공습에 참여한 지 한 달여 만에 약 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5년 12월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내 난민등록자 수를 합친 것 보다 많았다. 이는 주변 아랍국가인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및 이집트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이미 주변국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시리아 난민들은 더 이상 주변국으로의 유입이 어려워지자 아랍·중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피난처를 찾아 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3월 유럽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 수는 약 12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약 29%가 시리아 난민들이었다. 또한 2015년 전체 망명 신청자 중 약 35%가 독일로의 망명을 신청하면서 독일은 시리아 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들 모두에게 이주하고 싶은 최고의 선호 국가가 되었다(Hall & Lichfield 2015).

UNHCR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 독일에 306,703명, 세르비아에 313,314명, 노르웨이 에 107,966명 등 유럽 내 시리아 난민의 신청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유럽 내 시리아 난민의 증가는 주변 아랍국인 레바논과 요르단 등에서 시리아 난민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16년 5월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등록자 수는 약 4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시리아 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수도 약 6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

15) 김한지(2014).

다. 따라서 최소 시리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리아 외부 그리고 내부에서 고향을 떠난 채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4-1-1. 주변국의 영향

“시리아 난민의 주변국 유입은 유입국의 물가 및 주거임대비의 상승 및 노동시장 경쟁과열로 나타났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유입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실업률과 빈곤율의 상승을 가져왔다. 시리아 난민들은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시리아 난민을 선호하게 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자국민이 아닌 시리아 난민들에게 집을 임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시리아 난민들은 주변 유입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입국에서의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리아 주변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난민들이 이주하는 유럽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문명의 벽’은 증오심을 확대 재생산해 또 다른 테러를 낳고 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과거 국가 권력만이 가능했던 대규모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가 초래한 ‘풍요 속 빈곤’에서 서방의 보통 젊은이들이 IS 등 극단적 폭력주의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된다. 결국 국가들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자국 요새화를 통해 ‘일국의 안전’만을 우선시한다.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고, 독일에서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이민을 막기 위해 장벽을 쌓겠다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¹⁸⁾

4-1-2. 한국의 영향

2013~2016년 시리아인 출입국향
난민심사 회부 현황

	난민신청	난민심사 회부	난민심사 불회부
2013년	0	0	0
2014년	13	13	0
2015년	295	270	25
2016년 1~3월	37	31	6

단위: 건, 자료: 법무부

시리아인 난민 인정자 규모

*1994년 1월~2016년 3월 누적

난민 인정 **3**명

인도적 체류 **660**명

난민 불인정 **11**명

자료: 법무부

한겨레21, 「문지마, 따지지마 돌려보낼 거야」, 2016년 5월 24일.

16) 정혜경·조희선, 「‘아랍의 봄’이후 시리아 난민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8권 제3호 [2016. 08] : 101~134

17) 정혜경·조희선(2016).

18) 윤덕민(2016).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난민에 관한 뚜렷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1994년부터 최근 2015년 8월까지 약 1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522명으로 전체 난민의 약 4.3%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과 관련해서는 2014년 5월 법무부가 477명의 난민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시리아 난민의 국내유입이 시작되었다(김기정 외 2015). 그러나 2015년 11월 이후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2016년 4월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인 28명의 시리아 난민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민수용에 관한 찬반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였다(정녹용 2015).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난민들을 위한 적절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¹⁹⁾

4-2. 다극적 중동으로의 이행

“이러한 갈등선은 사실 ‘아랍 냉전’과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중동의 국제정세는 ‘양극적 다극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이집트(무슬림형제단계 집권), 이라크(시아계 집권) 및 새로운 내전 양상, 아직 진행 중인 시리아에서의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및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이해는 중동 국제관계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리아 사태(민주화와 내전)가 가져올 순니 벨트와 시아 벨트 각각의 내적 변화 및 연대감 변화는 주변국들 및 여러 행위자들 간 관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지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힘들며, 그 이유는 행위자들 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랍의 봄 이후, 특히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책을 통하여 예측되는 중동 국제관계 지형은 ‘양극적 아랍 냉전(bi-polar Arab Cold War)’에서 ‘다극적 중동(multi-polar Middle East)’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한다.”²⁰⁾

5. 기타

5-1. 쿠르디와 오므란



Child Home
 “남아 있으면 오므란, 떠난다면 쿠르디”
 © 수단 출신 풍자 만화가 할리드 알바이

19) 정혜경·조희선(2016).

20) 정상률(2014).

5-2. 하얀 헬멧

“'하얀 헬멧'의 정식 명칭은 시리아시민방위대(SCD)다. 2013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하얀 헬멧'은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이 아닌 8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군 점령 지역은 물론 극단주의 성향의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포함돼 있다. (...) '하얀 헬멧' 소속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현재 약 2700명.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6만명 이상의 주민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130여명의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얀 헬멧' 대원들은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폭탄과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 2014년부터는 베이지 색깔로 유니폼을 맞춰 입기 시작했고, '하얀 헬멧'이란 하나의 조직체로서 정체성을 갖게 됐으며, 지금은 8개주 69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기도 하다. 구조 능력도 초기보다 많이 개선돼 지난해 다르쿠시 지역이 폭격을 맞았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120명 이상을 구조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16시간동안이나 건물잔해더미를 파내 결국 어린 소년을 구출해낸 적도 있다.

시리아 정부는 '하얀 헬멧'이 알레포의 희망, 또는 영웅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칭송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과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 '하얀 헬멧'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는가하면, 대안 노벨평화상으로 불리는 '바른 생활' 상을 수상했고, 올해 노벨 평화상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²¹⁾

6. 참고문헌

정혜경·조희선,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난민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8권 제3호 [2016. 08] : 101~134

정상률,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국제관계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14, 237~275쪽.

김한지, 「시리아 내전 장기화 원인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 제4호 [2014. 02]: 53~88

21) 뉴시스, 알레포의 희망 '하얀 헬멧'...구조활동 중 130명 사망, 2016년 10월 4일.